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불법사금융 피해나
영끌, 빚투와 같이 부채관리에 실패한 경우 등
금융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청년들이 많은 시기에
금융교육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금융교육협의회 위원님들과
금융교육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청년 대상 금융교육 필요성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 프로그램과 서점에 재테크에 대한 콘텐츠가 넘쳐나고,
갯가지 일확천금 사례가 일상을 자극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돈을 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빚을 내는 것에 두려움이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시작되고 물가가 오르면서
이자와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뒤늦게 부채와 금리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가격 하락까지 더해져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성공사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과 사회에 진출해 처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와 주거비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장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새도 없이 무리하게 빚을 내어 투자하고 집을 마련하는데 대부분의 소득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적은 자본으로 고수익을 실현한 투자사례 등 주변의 경험담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올바른 금융이용에 대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없이 단순히 금융지식의 전달에만 그쳐온 그간의 금융교육 방식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격년으로 시행하는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지수*는 OECD 평균 이상입니다.

* (22년) 66.5점 (OECD 평균 62점)

그러나 금융이해력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별 내용을 보면, 무작정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 (금융지식) 75.5점, (금융행동) 65.8점, (금융태도) 52.4점

- (금융지식)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고 적절한 정보에 입각한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지식
- (금융행동) 재무계획 및 예산관리, 정보에 입각한 금융상품 선택 등 금융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하는 행위
- (금융태도) 소비와 저축, 현재와 미래, 돈의 존재가치 등에 대한 선호도로 저축이나 미래를 선호할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짐

특히, 2030 청년층의 경우,
 이자의 의미,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성향과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뚜렷*합니다.

* 금융태도 : (20대) 48.9 (30대) 50.9 / (평균) 52.4

이는 청년들에게, 금융지식의 습득보다는
 금융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지식과 행동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의미있고 효과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 청년 금융교육 강화 방안

사회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층은
 본격적으로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고,
 자산 형성을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해서라도 금융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그 효과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에 청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고자
 다음 세 가지 정책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우선, 청년층이 과잉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금융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전 금융권 공동으로 「금융기초체력 키우기」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역량진단 체크리스트, 홍보 영상 등을 통해 과도한 부채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소득과 지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태도와 금융행동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시점(teachable moment)에 맞추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미(美) 재무부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금융이해력은 교육 후 2년 이내에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FLEC(Financial Literacy Education Commission)

소득수준 등 개인이 처한 금융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내용으로 제공되는 일반 금융교육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일 경우 지식 습득과 실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그 교육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시점에 맞추어 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금융이용 정보와 함께 등기부등본 읽는 법,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등 실생활 관련 정보까지 함께 제공할 경우 보다 실용적이고 기억에 남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학자금대출, 카드발급, 임대차 계약, 계좌개설 등 일상속의 다양한 금융상품 이용 시점에 맞추어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마지막으로 청년 유형별 교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같은 청년이라도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금융거래 목적이나 자금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금융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취업설명회와 함께 하는 금융교육, 군 장병 대상 집합교육, 민간 플랫폼 연계교육, 취약계층 자산형성 사업과의 연계교육 등 교육대상 및 중점 교육내용을 차별화 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돈 관리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경우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재무상담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1대1 코칭에 기반한 재무상담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4. 당부 및 마무리 말씀

여러분,
금융교육 지금도 늦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부터 솔선하셔서
우리 금융교육 체계와 방식을 훨씬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바꾸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된 청년 금융교육 방안의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일선에서 직접 청년들과 접하는 지역 주민센터부터,
학교 교과과정 운영 및 학자금 대출,
그리고 시설이용 청년의 자립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참석하신 모든 부처와 관계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이 평생 가듯
우리가 추진하는 금융교육이 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의 금융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